

국내 리터러시 연구 동향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A Bibliometric Analysis of Literacy Research in Korea

이재윤 (Jae Yun Lee)*

김수정 (Soojung Ki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6,940편의 리터러시 관련 논문에서 연구된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를 도출하고, 시기별 연구의 흐름 및 개별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간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리터러시 연구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20년부터 발표 논문이 급증하여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이 2020년 이후 발표되었다. 이는 2019년을 기점으로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문분야의 수가 확대되면서 연구의 저변이 넓어진 결과이다. 리터러시 유형별로는 Digital Literacy, Literacy, Media Literacy가 핵심 개념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문분야별로는 교육학, 한국어와 문학, 학제간연구, 영어와 문학,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9년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Digital Literacy 연구가 급증하고, AI Literacy와 Data Literacy 연구가 급부상한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Information Literacy 연구는 급감하였다. 이 연구는 리터러시 연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전환점이 2019년이었음을 밝히고, 리터러시 연구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상세하게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literacy in all academic fields in Korea. To that end, 6,940 literacy-related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KCI database. From those articles, the main literacy keywords were extracted, the chronological flow of research,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academic disciplines and various types of literacy were analyzed comprehensively. The results show that literacy research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1. A sharp rise in published articles beginning in 2020 resulted in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rticles published after that year. This is due to an expansion in the number of academic fields engaging in literacy research starting in 2019. In terms of literacy types, Digital Literacy, Literacy, and Media Literacy were identified as core concepts. By academic discipline, the most active research fields were Education, Korean Language and Literacy, Interdisciplinary Studi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ince 2019, research on Digital Literacy has rapidly increased, particularly within the field of Education, while interest in AI Literacy, and Data Literacy has also risen significantly. In contrast, research on Information Literacy within Information Science has greatly declined. Overall, this study highlights 2019 a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iteracy research in Korea and provides novel insights into its evolving trajectory and disciplinary orientations.

키워드: 리터러시, 연구동향, 교육학, 문헌정보학,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literacy, research trend, education, information science, digital literacy, AI literacy, dat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emexlee@mju.ac.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kimssoojung@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5년 7월 31일 ■ 최초심사일자 : 2025년 8월 24일 ■ 게재확정일자 : 2025년 8월 27일

■ 정보관리학회지, 42(3), 35-60,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3.03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오늘날 그 개념은 보다 복합적으로 변용되거나 확장되고 있다. UNESCO는 리터러시를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의 집합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텍스트로 매개되며, 정보가 풍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식별, 이해, 해석, 창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UNESCO, 2025). 이는 리터러시가 단순한 문해력에서 벗어나 개인이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박주현(2018) 또한 리터러시를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문자,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으며, 리터러시가 시대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만큼 의사소통 도구나 전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도 달라져 왔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일 명사로서의 ‘리터러시’의 개념이 확장되는 동시에, 최근에는 ‘리터러시’라는 용어 앞에 특정 분야를 추가하여 ‘그 분야와 관계되는 기본 소양’이라는 의미의 세분화된 리터러시 개념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김혜정, 윤영, 2021).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등과 같은 리터러시 개념의 분화는 리터러시가 각 분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각 학문분야에서 리터러시를 주제

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축적됨에 따라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과 발전 양상을 파악하고자 리터러시 연구 동향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이를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영희, 윤혜향, 2023; 장소영, 김경이, 2022), 디지털 리터러시(임동신 외, 2023), 데이터 리터러시(이재윤, 2023), AI 리터러시(황현정 외, 2023) 등 개별 리터러시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혹은 여기에 특정 대상자로 세분화하여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김경화 외, 2024; 신동희, 조은혜, 2025), 간호대학생 디지털 리터러시(박영수, 이창준, 2025), 대학생 디지털 리터러시(김혜정, 2025), 대학생 정보 리터러시(이다현, 신동희, 2024) 등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리터러시 유형별, 대상별 연구의 발전 양상과 특징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리터러시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리터러시 연구 전반의 흐름과 구조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 학문분야의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이창봉, 윤영, 한승규(2021)가 유일하나 이 연구도 수행된 지 약 4년이 지나 최근의 급격한 연구 동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업데이트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전 학문분야에서 전개되어 온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6,940 편의 리터러시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된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를 도출하고, 시기별 연구의 흐름 및 개별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간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1.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국내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연구 중에서 개별 리터러시 유형에만 국한하지 않고, 특정 관점에서 복수의 리터러시를 다루거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창봉, 윤영, 한승규(2021)는 전체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KCI에 등재된 1,496편의 리터러시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리터러시 연구의 흐름을 도입기, 증가기, 급증기로 구분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관련 연구가 급증했음을 밝혔다. 고빈도어로는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디지털’, ‘정보’ 등이 도출되었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① 디자인 이미지와 디지털 미디어, ② 문화예술, 교양 정보, ③ 교육 정책, 교육 내용, ④ 디지털 사회 변화의 네 가지 대주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전반적 연구 동향 분석과 달리 김도현(2020)은 21세기 필요 역량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춰 이와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 203편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유형별로 연구목적, 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보리터러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ICT 리터러시는 교육학 중에서도 컴퓨터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리터러시 유형별로 관심 주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짜 뉴스 대응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념 모형 구축 및 평

가도구 개발, 정보리터러시는 소외계층 대상 연구, ICT 리터러시는 초등학생 대상 수준 분석이 특징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결합한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에 중점을 둔 연구도 수행되었다. 손미현, 조현국(2024)은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지식 정보처리역량에 관한 2,345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리터러시별 연구 동향을 도출했다. 이들은 네 개의 리터러시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넓은 의미를 내포하여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리터러시 역시 향후 디지털 리터러시나 데이터 리터러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환경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이나 지역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임정훈(2022)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에 게재된 정보활용교육 관련 논문 306편을 분석하여, 정보 활용교육 현황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관종별로는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민수, 김혜진(2022)은 240편의 정보활용교육 논문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20개의 주요 토픽을 수집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추가 평가지표를 제안했다. 윤지혜, 정유경(2022)은 학교도서관에서의 정보활용교육 관련 연구를 선별하여

정보활용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원 이용 및 판단’과 ‘정보윤리’와 같은 교육내용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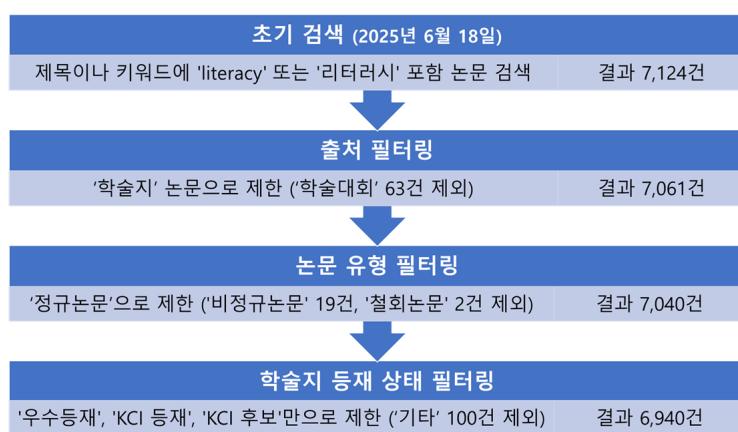
보다 폭넓게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장수현, 남영준(2022)이 있다. 이들은 WoS와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터러시 관련 논문을 추출하여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WoS와 KCI의 리터러시 연구 간에는 주요 키워드와 연구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교육’,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및 이용자 교육 관련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전체 학문분야와 구별되는 해당 분야의 연구 관심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2.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분석 내용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그림 1>의 절차를 통해 수집했다. 먼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이나 키워드에 ‘literacy’ 또는 ‘리터러시’를 포함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7,124 건 중 학술지에 게재된 정규논문으로서 학술지 등재 상태가 ‘우수등재’, ‘KCI 등재’, ‘KCI 후보’인 논문만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6,940건의 논문을 확보했다.

분석 내용은 1) 연도별, 학문분야별 리터러시 논문 수와 성장추세 분석, 2) 저자키워드 및 군집 분석, 3)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키워드 간 연관성 분석, 4) 리터러시 키워드 변화 시점 분석이다. 각 분석 방법의 세부 내용은 해당 절에서 설명하였다. 모든 논문 수 집계 기간은 2001년부터 데이터 수집 시점인 2025년 6월 18일까지로 하되, 연도별 건수로 분석하는 성장지수를 산출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이 남은 2025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24년까지만 범위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1> 리터러시 연구 KCI 논문 수집 과정

3. 학문분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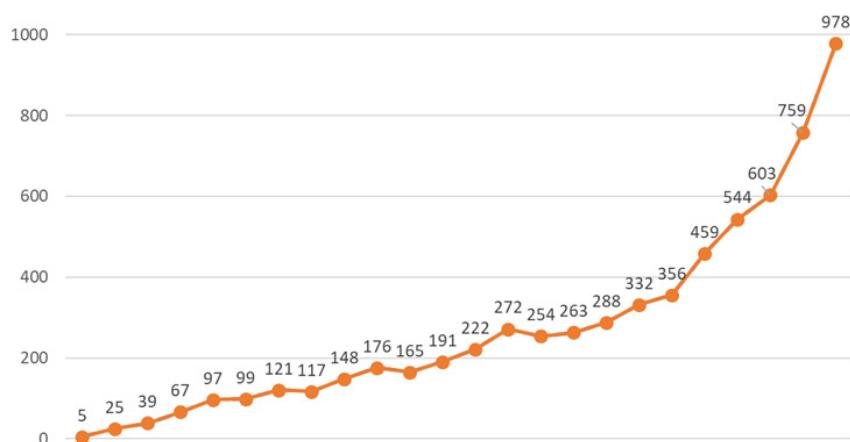
3.1 연도별, 학문분야별 논문 수

국내에서 발표된 리터러시 논문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2001년에 처음 5편의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논문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978편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6월 15일 현재)까지 출간된 논문 수는 3,703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53.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5~6년 동안 리터러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리터러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성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6,940편의 리터러시 논문이 속한 학술지의 KCI 학문분야 대분류를 집계한 결과, 사회과학 분야가 3,143편(4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인문학 1,880편(27.0%), 복합학 858편(12.4%)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밖에 예술체육 348편(5.0%), 의약학 340편(4.9%), 자연과학 178편(2.6%), 공학 178편(2.6%), 농수해양 15편(0.2%)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터러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KCI 학문분야 분류표의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98개의 중분류에서 리터러시에 대한 논문이 1편 이상 발표되었다. 전체의 1%인 70편 이상을 발표한 중분류는 19개였다. 이를 포함해서 논문 수 상위 20개 중분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교육학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2,225편이 발표되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어외문학 966편(14.0%), 학제간연구 426편(6.1%), 영어외문학 336편(4.8%), 문헌정보학 264편(3.8%)의 순으로 나타났다. 3위 이내 중분류 분야의 비율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1%에 달하고, 5위 이내 중분류 분야의 비율 합계는 60.8%에 달했다. 10위인 기타사회과학까지의 누적 비율은 70.7%, 17위인 사회복지학까지의 누적 비율은 70.7%, 17위인 사회복지학까지의 누적 비율은



<그림 2> 연도별 리터러시 논문 수(2025년은 6월 18일 현재 36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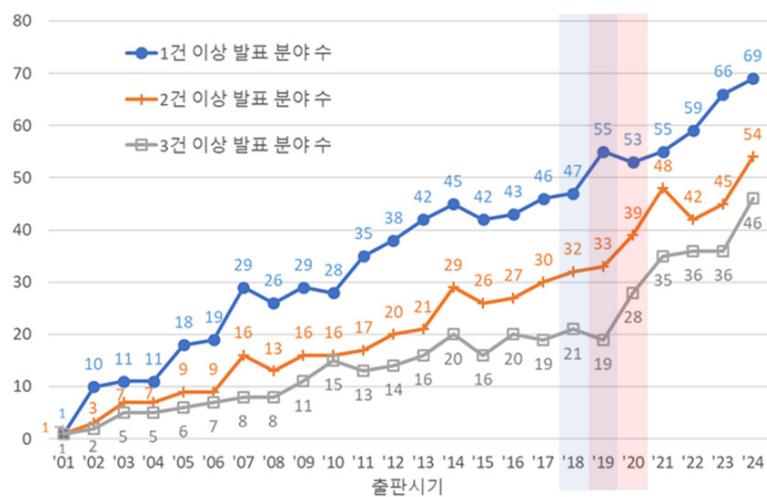
〈표 1〉 KCI 중분류별 논문 수 상위 20개 분야

순위	중분류	논문 수 (비중)	순위	중분류	논문 수 (비중)
1	교육학	2,225 (32.1%)	11	경제학	103 (1.5%)
2	한국어외문학	966 (13.9%)	12	경영학	102 (1.5%)
3	학제간연구	426 (6.1%)	13	과학기술학	102 (1.5%)
4	영어외문학	336 (4.8%)	14	언어학	101 (1.5%)
5	문헌정보학	264 (3.8%)	15	예방의학	95 (1.4%)
6	기타인문학	165 (2.4%)	16	컴퓨터학	94 (1.4%)
7	신문방송학	145 (2.1%)	17	사회복지학	86 (1.2%)
8	간호학	144 (2.1%)	18	생활과학	86 (1.2%)
9	사회과학일반	129 (1.9%)	19	체육	70 (1.0%)
10	기타사회과학	105 (1.5%)	20	기독교신학	65 (0.9%)

은 전체의 80.5%에 달해서 리터러시 연구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문분야 수는 2010년대 이후에 비교적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 전년 대비 8개 학문분야가 증가하여 다소 큰 변화를 보였다(〈그림 3〉 참조). 3편 이상 논문이 발표된 학문분야 수는 2019년까지는 최대 21편 이하에서 큰 변화 없

이 조금씩 증가 또는 정체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2020년 28개 분야, 2021년 35개 분야로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리터러시 연구의 저변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전체 리터러시 연구의 양이 급증하는 현상도 이처럼 리터러시 연구의 저변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일정 규모 이상 논문 발표 학문분야 수 변화 추세

3.2 학문분야별 성장추세 분석

그렇다면, 2019년 이후 리터러시 연구의 확산과 성장을 주도한 것은 어느 리터러시 주제이고 어느 학문분야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24개 학문분야별 리터러시 논문 수와 논문 성장지수는 <그림 4>와 같다. 논문 성장지수는 100편에 가까운 논문이 출판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논문수의 성장추세를 성장지수(Growth Index) 공식(이재윤 외, 2011)을 사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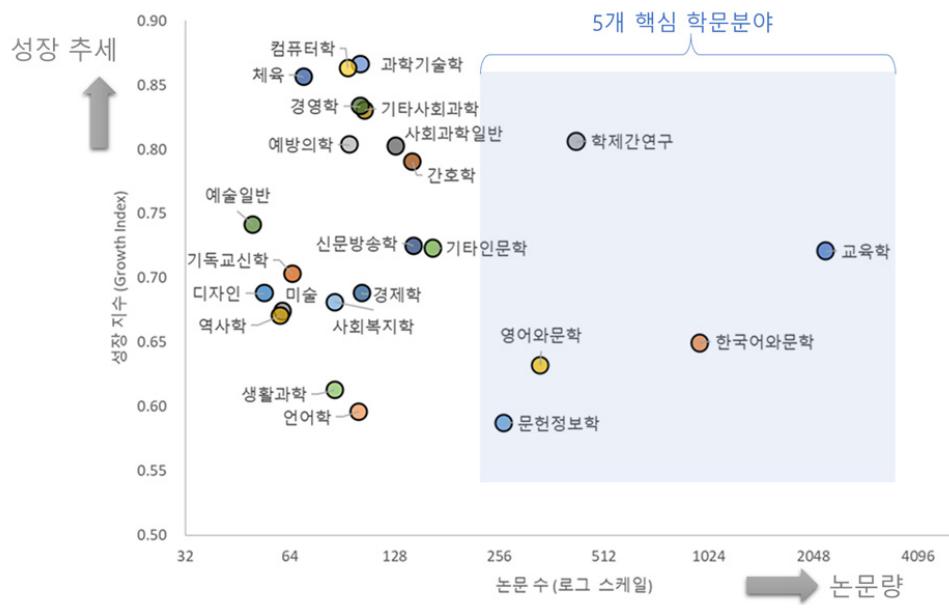
<그림 4>의 왼쪽 위에 위치한 체육, 과학기술학, 컴퓨터학, 기타사회과학, 경영학 등의 분야는 논문 수는 많지 않지만 성장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논문 수가 가장 많은 5개 핵심분야 중에서는 학제간연구의 성장지수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교육학이 높았으며, 한국어와 문학, 영어와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지수를 보였다. 문헌정보학은 가장 낮은 성장지수를 보여 다른 분야에 비해 리터러시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키워드 분석 결과

4.1 분석 대상 키워드 선정 과정

6,940편 논문의 국문 키워드와 영문 키워드 필드로부터 추출된 저자키워드는 31,556종으로, 전체 빈도 합계는 68,177건이다. 동일 논문에 중복된 키워드가 출현한 6,206건을 제외하면 31,556종의 키워드가 총 61,971회 출현했다. 국문 키워드 필드에 영문 키워드 필드값을 그대로



<그림 4> 주요 학문분야별 리터러시 논문 수와 성장지수

〈표 2〉 출현빈도 상위 키워드 20종

키워드	문현빈도	키워드	문현빈도
Digital Literacy	918	Literacy Education	158
Literacy	698	문해력	136
디지털리터러시	683	문식성	133
Media Literacy	495	Financial Literacy	128
미디어리터러시	366	Environmental Literacy	123
Health Literacy	338	Visual Literacy	117
Information Literacy	234	Data Literacy	112
리터러시	190	정보활용능력	104
Critical Literacy	173	Media Education	100
AI Literacy	162	미디어교육	98

넣은 논문이 더러 있어서 중복건수가 많았다. 중복출현을 제외하고 상위 키워드 20종은 〈표 2〉와 같다. 이 키워드들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포함하며, 한국어 띄어쓰기를 생략하였고, 표기 를 통일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의미의 영문 키워드 가 국문 키워드보다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Digital Literacy는 918회인데 디지털리터러시는 683회에 불과했고, Literacy 는 698회인데 리터러시(190회)와 문해력(136 회), 문식성(133회)의 합계는 459회에 그쳤다. 이는 영문 키워드가 부여된 논문에 대해서 동 일한 의미의 국문 키워드가 부여되지 않은 경 우가 상당히 많음을 시사한다. 그 원인으로는 국문 키워드 없이 영문 키워드만 부여된 논문 이 상당수 포함된 것, 영문 키워드에 대한 국문 번역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터러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 되지 않은 Media Education(100회)과 미디어 교육(98회)은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때, 영문 Literacy의 국문 번역이 통일되지 않은 것 이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데

이터의 포괄성과 일관성을 감안해서 영문 키워드 만 분석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byte 문자가 하나라도 포함된 키워드는 영문 키워드 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한 결과, 14,949 개의 키워드가 제외되고 16,607개의 영문 키워 드가 확보되었다. 영문 키워드만 분석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6,607종의 키워드 중에서 literacy를 포함한 키워드는 1,648종(9.9%)이고, literacy로 끝나는 키워드(이후 ‘리터러시 키워드’로 표기)는 779종 (4.7%)였다. 779종의 리터러시 키워드에 대해서 동일한 키워드가 달리 표기된 경우(예,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와 AI Literacy)나 오타 등을 수정해서 이표기를 하나로 통일 처리한 결과, 713종의 리터러시 키워드가 확보되었다.

리터러시 키워드 중에서 10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가 11종,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가 67 종, 5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가 109종이다. 13위 (빈도 97)와 14위(빈도 58) 사이가 현격한 격 차를 보이고 있어서, 13위 이내에 포함된 키워 드(빈도 97회 이상)들을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로 선정하였다.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 및

각 키워드와 동일 의미의 국문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Cultural Literacy나 Health Literacy 와 같이 5~6종의 국문키워드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련 연구자들 간의 원활한 학문적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리터러시 국문 용어의 표준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 이외에도 10회 이상 출현한 리터러시 키워드는 54종이 더 확보되었다. 54종 리터러시 키워드는 〈표 4〉와 같다.

이상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 67종 중 리터러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Illiteracy는 제외했다. 또한, Scientific Literacy 와 Science Literacy는 둘 다 주로 ‘과학적 소양’으로 번역되며 출현한 모든 논문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한 후 빈도가 더 높은 Scientific Literacy로 통합했다. 한 논문에서

Scientific Literacy와 Science Literacy를 둘다 저자키워드로 부여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통합 후 Scientific Literacy의 문헌빈도는 12번 째로 높은 107(97+11-1)이 되었다. 다른 유사 키워드 쌍들은 일부 논문에서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 보이면 통합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과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 52종을 합친 65종을 이후의 집중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2 리터러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0회 이상 사용된 65종의 리터러시 키워드가 동시출현한 정보를 기초로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다른 리터러시 키워드와 전혀 동시출현하지 않는 리터러시 키워드가 여러 건 있었다. 따라서 키워드 동시출현 정보를 활용하되, 두 키워드가 사

〈표 3〉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

키워드	빈도	영문 키워드와 의미가 같은 국문 키워드(동시출현빈도)
Digital Literacy	922	디지털리터러시(657), 디지털역량(44), 디지털소양(37), 디지털문해력(28)
Literacy	699	리터러시(179), 문식성(127), 문해력(116), 문해(28), 문식력(17)
Media Literacy	497	미디어리터러시(351), 매체문식성(25)
Health Literacy	343	건강정보이해능력(74), 건강문해력(36), 헬스리터러시(31), 건강정보문해력(11), 건강정보이해력(10)
Information Literacy	235	정보활용능력(88), 정보리터러시(61), 정보문해(16)
AI Literacy	187	AI리터러시(83), 인공지능리터러시(36), 인공지능소양(9)
Critical Literacy	173	비판적문식성(51), 비판적리터러시(22), 비판적문해력(13), 크리티컬리터러시(11)
Financial Literacy	128	금융이해력(75)
Environmental Literacy	125	환경소양(73)
Visual Literacy	118	비주얼리터러시(33), 시각적문해력(28), 시각적문해(4)
Data Literacy	113	데이터리터러시(88), 데이터소양(6), 데이터문해력(5)
Cultural Literacy	98	문화적문식성(22), 문화리터러시(19), 문화적리터러시(8), 문화적문해(6), 문화적문식력(4), 문화적소양(4)
Scientific Literacy	97	과학적소양(65)

〈표 4〉 핵심 키워드 13종을 제외한 10회 이상 출현한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 54종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ICT Literacy	58	Physical Literacy	29	Agricultural Literacy	15
News Literacy	55	Adult Literacy	29	Mathematical Literacy	14
Early Literacy	52	Computer Literacy	28	Film Literacy	14
Ecological Literacy	51	Economic Literacy	28	Historical Literacy	14
Basic Literacy	48	Emergent Literacy	24	Family Literacy	13
Multimodal Literacy	45	Reading Literacy	23	Climate Literacy	13
E-Health Literacy	45	Functional Literacy	22	Social Literacy	12
Curriculum Literacy	45	Food Literacy	22	Social Media Literacy	12
Digital Media Literacy	44	Job Literacy	18	Emotional Literacy	12
Mental Health Literacy	41	New Literacy	18	Multiple-Document Literacy	11
Multicultural Literacy	40	Game Literacy	18	Science Literacy	11
Academic Literacy	39	Oral Health Literacy	17	Ocean Literacy	11
Disciplinary Literacy	38	Assessment Literacy	17	Smart Media Literacy	10
Statistical Literacy	35	Humanities Literacy	16	Religious Literacy	10
Policy Literacy	34	Illiteracy	16	New Media Literacy	10
Multi Literacy	32	Energy Literacy	16	Content Literacy	10
Dance Literacy	32	Critical Media Literacy	15	Content Area Literacy	10
STEAM Literacy	30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15	Beginning Literacy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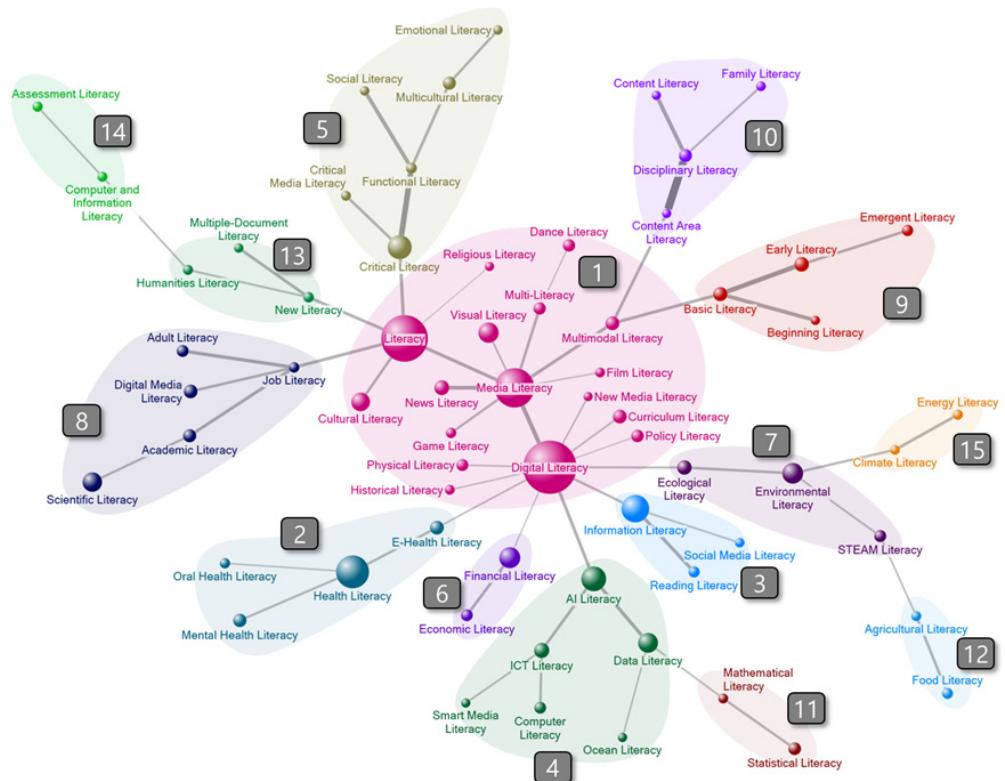
용된 논문이 계재된 학술지가 겹치는 정도를 추가로 키워드 관계 정보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키워드 동시출현 코사인계수와 키워드 계재 학술지 중복 코사인계수를 각각 산출한 후 값을 합쳐서 키워드 연관도 행렬을 산출했다. 키워드 계재 학술지 중복 코사인계수는 각 키워드가 학술지마다 출현한 횟수의 벡터를 만들어서 두 키워드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키워드 A와 B가 각각 4회와 3회 출현하면서 동시출현횟수는 1이며, 3종의 학술지에 출현한 횟수가 각각 {3, 0, 1}과 {1, 2, 0}이라면, 두 키워드의 동시출현 코사인 계수와 계재 학술지 중복 코사인계수는 각각 아래와 같이 산출되고, 두 키워드 간 연관도는 $(0.0833 + 0.4243)/2 = 0.2538$ 이 된다.

$$\text{동시출현 코사인 계수} = \frac{1}{\sqrt{4^2 \times 3^2}} = 0.0833$$

$$\text{계재 학술지 중복 코사인 계수} = \frac{3 \times 1 + 0 \times 2 + 1 \times 0}{\sqrt{(3^2 + 0 + 1^2) \times (1^2 + 2^2 + 0)}} = 0.4243$$

이렇게 산출한 65종 키워드 간 연관도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WNet 프로그램(이재윤, 2013)으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Schvaneveldt, 1990)와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NNC) (이재윤, 2006)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한가운데 위치한 1번 군집에는 Digital Literacy, Literacy, Media Literacy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다수의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디지



〈그림 5〉 65개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의 연관도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와 PNCC 군집

털 리터러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국내 리터러시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gital Literacy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군집들을 살펴보면, 4번 군집에는 AI Literacy, Data Literacy, ICT Literacy, Computer Literacy, Smart Media Literacy 등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터러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AI 리터러시는 가장 최근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 리터러시보다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3번 군집에서는 Information Literacy,

Social Media Literacy, Reading Literacy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결된 Information Literacy의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2번 건강·의료 군집, 6번 경제 군집, 7번 환경 군집은 각 학문분야에서 독립적인 리터러시의 연구 축을 형성하고 있다.

1번 군집의 Literacy는 그래프 상단 왼편 군집들의 중심 키워드로 나타나며, 5번, 8번, 13번 군집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5번 군집에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인 Critical Literacy를 비롯하여 Functional Lite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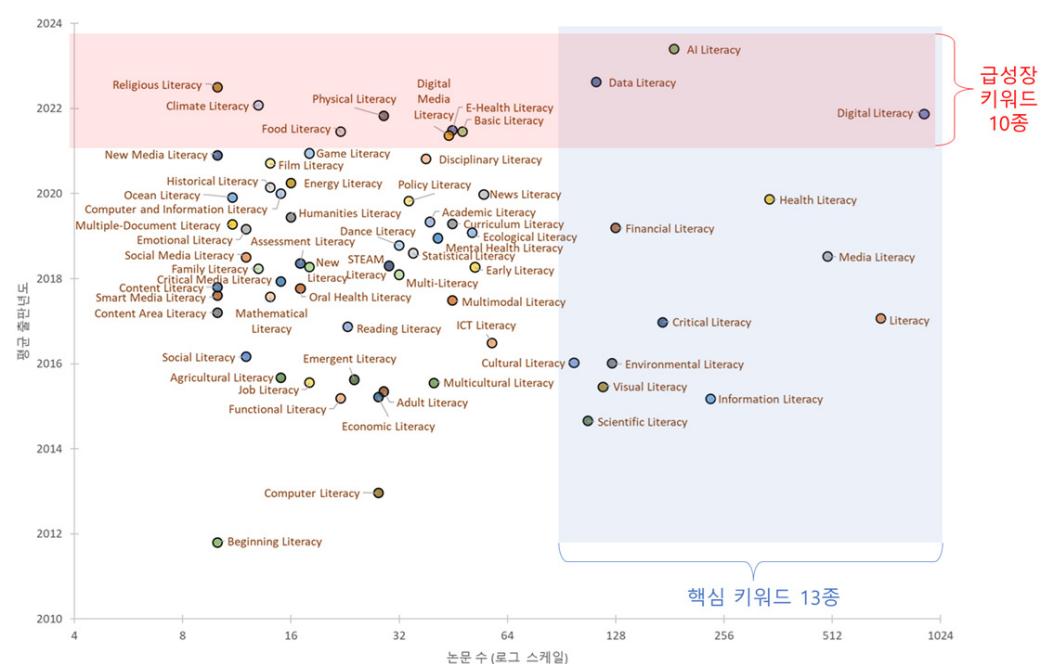
Multicultural Literacy, Emotional Literacy, Social Literacy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문화적, 감정적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다. 8번 군집은 Job Literacy, Adult Literacy, Academic Literacy, Scientific Literacy, Digital Media Literacy 등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리터러시로 구성되어 있다. 13번 군집에는 New Literacy, Multiple-document Literacy, Humanities Literacy 등 전통적인 리터러시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리터러시, 여러 문서를 비교·통합·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리터러시, 인문학적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다.

Media Literacy는 1번 군집의 또 다른 키워드인 Multimodal Literacy와 연결되며, 그로부터 상단 오른편으로 9번, 10번 군집으로 연결된다.

다. 9번 군집은 Basic Literacy, Early Literacy 와 같은 기초적인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10번 군집은 Content Area Literacy, Disciplinary Literacy와 같이 교과나 학문분야의 학습을 위한 보다 고차원의 리터러시로 구성되어 있다.

4.3 리터러시 키워드 성장추세 분석

각 키워드가 부여된 논문의 평균 출판년도를 산출하여 각 키워드의 성장추세를 분석하였다. 65종의 분석 대상 리터러시 키워드의 평균 출판년도를 세로축으로 하고 출현빈도를 가로축으로 사용해서 키워드별 연구량과 성장추세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으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많이 사용된 키워드이



<그림 6> 핵심 +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 65종의 연구량(논문수)과 성장추세(평균 출판년도)

고, 위쪽에 위치할수록 최근에 사용된 키워드이다. 따라서 오른쪽 위에 위치한 키워드는 연구의 양과 성장추세가 모두 상위권인 주제를 반영하고, 왼쪽 위에 위치한 키워드는 최근에 새로 연구되기 시작한 주제를 반영하며,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키워드는 예전에 연구가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구활동이 다소 주춤해진 주제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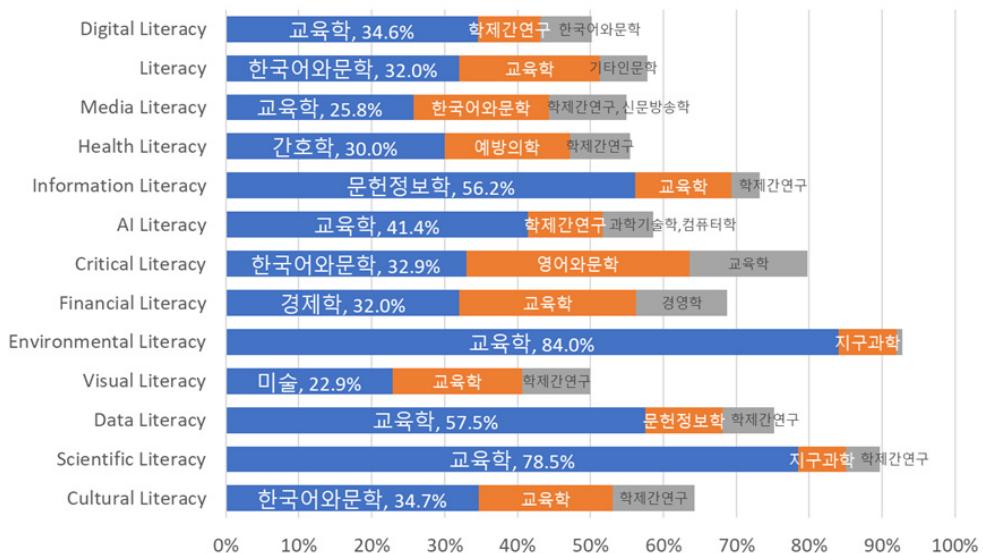
65종 키워드 중에서 발표 논문의 평균 출판년도가 2021년 이후인 10종을 급성장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문헌빈도 97회 이상인 핵심 키워드 13종에도 포함되어 급성장 핵심 키워드로 간주할 수 있는 리터러시 키워드는 AI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Literacy의 3종이었다. 이 세 키워드는 연구량이 많으면서도 성장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최근의 리터러시 연구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다.

5.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키워드 연관성 분석 결과

5.1 리터러시 키워드별 연구분야 다양성 분석

소수 학문분야가 연구 논문의 상당수를 과점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핵심 리터러시 13종에 대해서 각각 상위 3위 이내 학문분야의 점유율을 산출해보았다(〈그림 7〉 참조).

1위 분야가 3/4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리터러시는 Environment Literacy(교육학 84.0%)와 Scientific Literacy(교육학, 78.5%)였다. 두 리터러시 모두 지구과학 분야가 2위여서 지구과학 관련 교과 교육에서 다뤄지는 주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일부 분야가 거의 독점적으로 연구하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1위의 비중이 1/2을 넘는 분야는



〈그림 7〉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별 연구 점유율 3위 이내 학문분야의 점유 비중

Data Literacy(교육학, 57.5%)와 Information Literacy(문헌정보학, 56.2%)가 있었다. 이 두 분야는 교육학과 문헌정보학을 합치면 전체의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로 이 두 학문 분야가 연구를 주도하는 리터러시이며 연구분야 다양성이 낮은 편이다.

한편 1위 분야의 비중이 30% 이하로 낮은 리터러시는 Visual Literacy(미술, 22.9%), Media Literacy(교육학 25.8%), Health Literacy(간호학, 30.0%)의 3개 리터러시였다. 또한 Visual Literacy와 Digital Literacy는 상위 3개 분야의 비중 합계가 5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 4개 분야들은 비중이 10% 미만인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연구분야 다양성이 높은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5.2 학문분야별 리터러시 연구 다양성 분석

특정 학문분야에서 얼마나 다양한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문분야-리터러시 연관도를 측정해보았다. 학문분야의 규모와 리터러시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연관도를 산출하기 위해 코사인계수 공식을 응용하였다.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키워드 사이의 연관도는 해당 학문분야 논문에서 해당 리터러시 키워드가 사용된 횟수를 문자로 하고 학문분야 논문수와 리터러시 키워드 출현빈도의 곱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여 산출하였다.

리터러시 논문 수가 전체의 1% 이상인 19개 학문분야별로 연관 리터러시 키워드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육학 분야가 연관도 0.1 이상인 리터러시 키워드가 12건이어서 가장

다양한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 핵심 리터러시인 Digital Literacy, AI Literacy, Data Literacy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Curriculum Literacy, Scientific Literacy, Ecological Literacy, Energy Literacy 등과 같이 교과교육과 관련된 여러 리터러시를 다루기 위해 연구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와 문학 분야가 9개의 리터러시 키워드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 핵심 리터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Literacy를 비롯해서 Critical Literacy, Basic Literacy, Disciplinary Literacy 등 전통적인 언어 및 텍스트 해석 중심의 리터러시가 높은 연관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Multimodal Literacy나 Multiple-Document Literacy처럼 복합매체나 복합정보 환경에서 종합적 해석 및 글쓰기 역량과 직결되는 심화된 리터러시의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의 학문분야들은 융합적인 학제간연구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한두 종의 리터러시 키워드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경우는 문헌정보학과 Information Literacy 사이의 연관도인 0.575이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Information Literacy를 거의 독점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리터러시 연구(김수경 외, 2024),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임성은, 강봉숙, 2024),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이현아, 장우권, 2024; 임정훈, 2024), 헬스 리터러시 연구(윤현수 외, 2024) 등 다양한 리터러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두됨에 따라서 AI 리터러시를 직접 다룬 연구(오의경, 2025; 장수현, 남영

〈표 5〉 논문 수 1% 이상인 19개 학문분야별 연관 리터러시 키워드

학문분야	연관 리터러시 키워드 (연관도 0.1 이상)	
	건수	리터러시 키워드 (연관도)
교육학	12	Digital Literacy(0.264), Environmental Literacy(0.236), Scientific Literacy(0.204), Data Literacy(0.154), Media Literacy(0.144), AI Literacy(0.142), Curriculum Literacy(0.139), ICT Literacy(0.135), Literacy(0.127), Ecological Literacy(0.123), Statistical Literacy(0.115), Energy Literacy(0.101)
한국어와 문학	9	Literacy(0.307), Critical Literacy(0.157), Basic Literacy(0.157), Disciplinary Literacy(0.153), Media Literacy(0.149), Multimodal Literacy(0.130), Cultural Literacy(0.124), Multicultural Literacy(0.115), Multiple-Document Literacy(0.109)
학제간연구	3	Digital Literacy(0.143), Media Literacy(0.131), Game Literacy(0.130)
영어와 문학	2	Critical Literacy(0.298), Literacy(0.120)
문현정보학	1	Information Literacy(0.575)
기타인문학	1	Literacy(0.161)
신문방송학	2	Media Literacy(0.221), News Literacy(0.163)
간호학	1	Health Literacy(0.488)
사회과학일반	2	Financial Literacy(0.111), Digital Literacy(0.104)
기타사회과학	1	Food Literacy(0.121)
경제학	2	Financial Literacy(0.436), Economic Literacy(0.410)
과학기술학	1	AI Literacy(0.103)
경영학	2	Financial Literacy(0.160), Digital Literacy(0.112)
언어학	1	Literacy(0.103)
예방의학	2	Health Literacy(0.354), E-Health Literacy(0.166)
컴퓨터학	2	Digital Literacy(0.125), AI Literacy(0.109)
사회복지학	1	Mental Health Literacy(0.197)
생활과학	1	Food Literacy(0.175)
체육	2	Physical Literacy(0.420), E-Health Literacy(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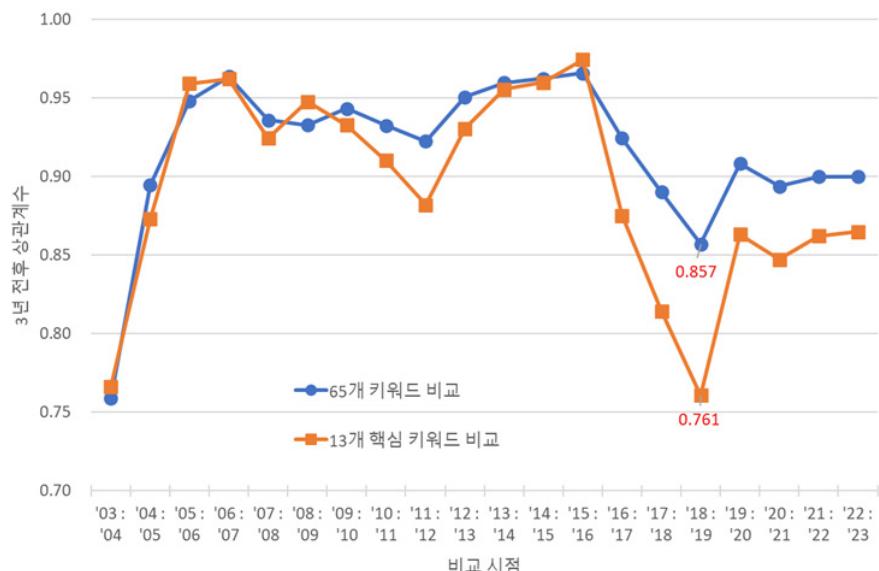
준, 2023),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면서 AI 관련 논점을 포함한 연구(이정은, 오효정, 2025),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루면서 AI 관련 논점을 포함한 연구(이정미, 2023)가 발표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관련 연구의 성장세가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리터러시 연구의 변화 시점 분석 결과

리터러시 연구의 변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의 리터러시 키워드 구성과 직후 3년 동안의 리터러시 키워드 구성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석해보았다. 예를 들어, 65개 키워드의 '10:'11 시점 3년 전후 상관계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각 리터러시 키워드가 사용된 빈도 65개의 벡터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각 리터러시 키워드가 사용된 빈도 65개의 벡터와 비교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이다. 1에 가깝게 높을수록 직전 3년과 직후 3년의 리터러시 구성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그림 8〉에서와 같이 리터러시 구



〈그림 8〉 3년 전후 리터러시 키워드 구성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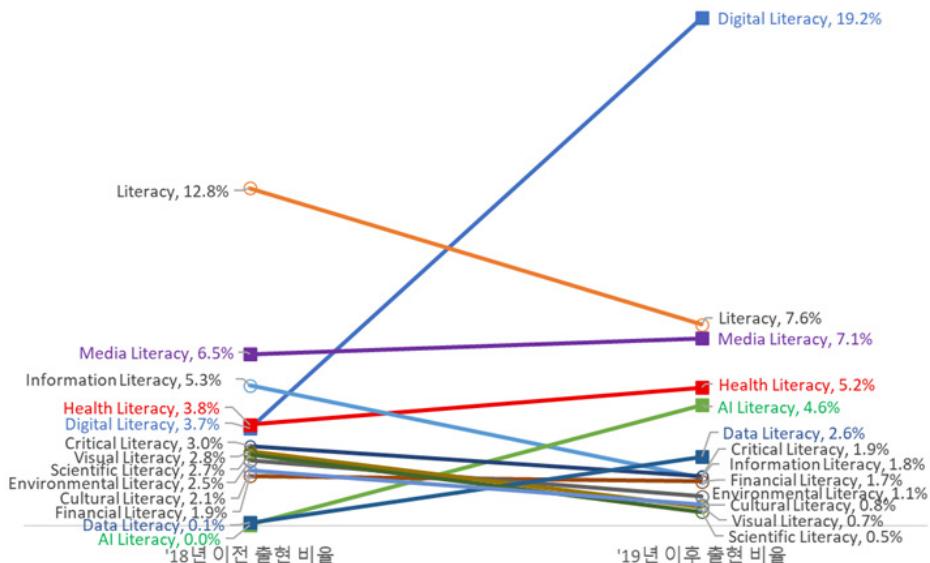
성이 가장 크게 달라진 시점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터러시 연구 논문이 5편에 불과했던 2001년이 포함된 첫 비교 시점인 2003년과 2004년 사이를 제외하면, 65개 리터러시 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13개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만 비교한 경우가 모두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리터러시 논문은 2018년까지 총 2,881편 (41.5%)이 출판되었고, 2019년 이후 4,059편 (58.5%)이 출판되었다. 2019년 이후 리터러시 연구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 각각이 2018년 이전 논문에서 출현한 비중과 2019년 이후 논문에서 출현한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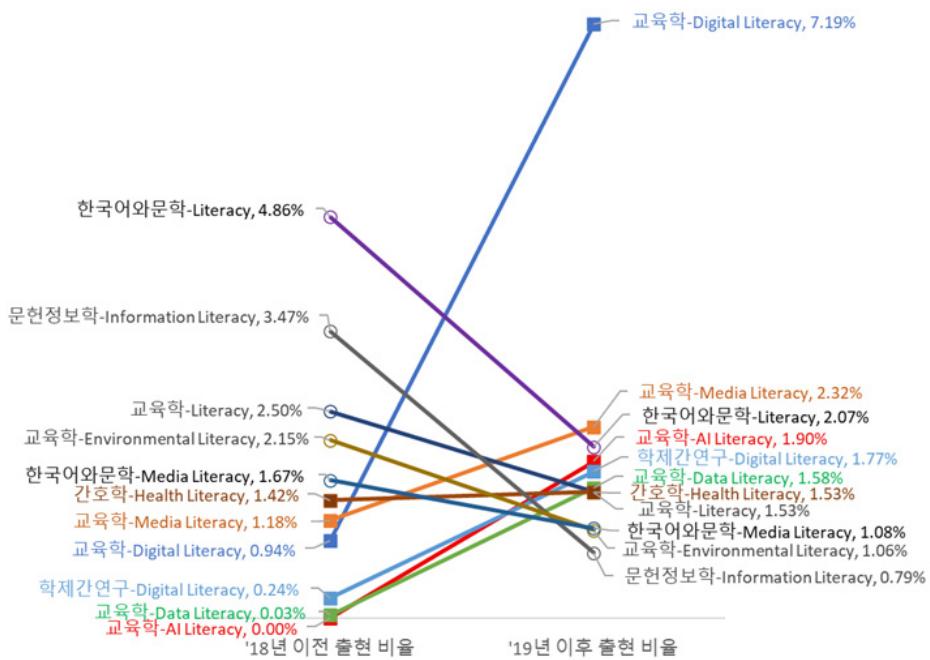
13종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중에서 2019년 이후에 비중이 증가한 것은 Digital Literacy를 비롯해서 5종이었고, Literacy를 비롯한 8종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가장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Digital Literacy(3.7%→19.2%)였고, Media Literacy(6.5%→7.1%), Health Literacy(3.8%→5.2%)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Data Literacy(0.1%→2.6%)와 AI Literacy(0.0%→4.6%)는 2019년 이후에 급부상한 키워드이다. 반면에 Literacy(12.8%→7.6%)와 Information Literacy(5.3%→1.8%)는 크게 감소한 대표적인 리터러시 키워드이다. 이 외에도 비율이 1/3 이하로 크게 감소한 리터러시 키워드로는 Visual Literacy(2.8%→0.7%)와 Scientific Literacy(2.7%→0.5%)가 있다.

2019년 이후 리터러시 연구를 수행한 주요 학문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 시기에 서라도 1.5% 이상의 출현 비율은 보인 총 11개 학문분야-리터러시 연구쌍의 시기별 출현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9〉 13개 핵심 리터러시의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 출현 비율 변화
(상승한 것: 사각형 표식, 하락한 것: 원형 표식)



〈그림 10〉 한 시기에서라도 1.5% 이상의 출현 비율을 보인 총 11개 학문분야-리터러시 연구쌍의 시기별 출현 비율 변화
(상승한 것: 사각형 표식, 하락한 것: 원형 표식)

2019년 이후에 출현 빈도가 증가한 학문분야-리터러시 연구쌍은 6개이고, 감소한 것은 5쌍으로 나타났다.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쌍은 교육학-Digital Literacy(0.94%→7.19%)였고, 그 외에 교육학-Media Literacy(1.18%→2.32%), 간호학-Health Literacy(1.42%→1.53%), 학제간연구-Digital Literacy(0.24%→1.77%)가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 이전에는 미미했던 교육학-AI Literacy(0.00%→1.90%), 교육학-Data Literacy(0.03%→1.58%)는 2019년 이후에 급부상하였다. 반대로 가장 출현 빈도가 크게 감소한 쌍은 문헌정보학-Information Literacy(3.47%→0.79%)와 한국어외문학-Literacy(4.86%→2.07%)였다. 이 외에 교육학-Literacy(2.50%→1.53%), 교육학-Environmental Literacy(2.15%→1.06%), 한국어외문학-Media Literacy(1.67%→1.08%)가 소폭 감소하였다.

정리해보면,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Digital Literacy 연구가 급증하고, AI Literacy와 Data Literacy 연구가 급부상한 반면, 한국어외문학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Literacy와 Information Literacy 연구가 급감한 것이 2019년 이후 리터러시 연구의 주된 변화이다. 따라서 2019년은 리터러시 연구의 중심이 Literacy에서 Digital Literacy로 전환된 디지털 전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7. 결과 종합 및 논의

7.1 결과 종합

이상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리터러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 이후에 출간된 논문의 수가 전체 논문 수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최근 리터러시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 성과가 폭발적이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는 단순한 연구량 증가를 넘어 리터러시 논문을 발표한 학문분야의 수가 확대되면서 연구의 저변이 넓어진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

둘째, 가장 리터러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5개 핵심 학문분야는 교육학, 한국어외문학, 학제간연구, 영어외문학, 문헌정보학이다. 전체 논문 대비 이들 분야의 논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특정 학문분야에 집중되던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이 5개 분야의 논문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교육학은 전체 리터러시 연구의 약 30%를 꾸준히 차지하면서 중심 학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문헌정보학은 성장지수가 낮아서 리터러시 연구의 성장세가 정체 상태이다.

셋째,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13종과 주요 리터러시 키워드 65종을 확인했다. 군집 분석에서는 Digital Literacy, Literacy, Media Literacy가 국내 리터러시 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함께, 급성장 키워드 13종 중에서는 Digital Literacy, Data Literacy, AI Literacy가 급성장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로 나타났다.

넷째, 학문분야별로 연관된 리터러시를 살펴본 결과, 교육학 분야는 급성장 핵심 리터러시 키워드 3개(Digital Literacy, Data Literacy, AI Literacy)를 비롯해 5개 리터러시 키워드와 연관성 1위를 차지하여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특정 리터러시에 집중하는 분야로 문헌정보학

-Information Literacy, 경제학-Financial Literacy, 간호학-Health Literacy가 높은 연관도를 보였으며, 특히 Information Literacy에 집중하는 분야는 문헌정보학이 유일했다.

다섯째, 시기별로는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 리터러시 연구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19년 이후 Digital Literacy 연구가 급증하고, AI Literacy와 Data Literacy 연구가 급부상 하였으나 Literacy와 Information Literacy 연구는 급감했다.

7.2 논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리터러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을 기점으로 Literacy에서 Digital Literacy로 리터러시 연구의 중심이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19년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급부상하면서 디지털 역량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다가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제도와 담론으로 정착한 시기가 2019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2018년에 전 세계 기업 이사회, CEO 및 고위 임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9년 가장 큰 경영 리스크로 디지털 전환 대비 부족이 꼽힌 바 있다(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s ERM Initiative & Protiviti, 2018). 국내에서도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2.17.)에 전 생애·전 직군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실시 및 AI 인재 양성이 전략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로써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제목이나 키워드에 “digital transformation”이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KCI 논문 수도 2018년에 11편에 불과하다가 2019년에 39편으로 급증한 후 최근에는 연간 수백 편씩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2019년은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리터러시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왜 교육학은 리터러시 연구의 중심 분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문헌정보학은 성장세가 정체된 것일까? 교육학은 전통적으로 문해·문식 교육을 다루어 왔으나 첨단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면서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이와는 달리, 문헌정보학은 오랫동안 Information Literacy라는 단일 개념에 연구를 집중해 왔으나 최신 리터러시 개념들이 부상하면서 기존 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AI Literacy 등 새로운 리터러시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연구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재윤(2023)의 해외 Data Literacy 연구 분석에서도 교육학 분야가 38.1%, 문헌정보학 분야가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국내 데이터 리터러시 연구 중 문헌정보학의 비중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문헌정보학은 변화하는 리터러시 환경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Information Literacy뿐만 아니라 AI Literacy, Data Literacy 등 최신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

러,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도서관 현장과 연계하여 리터러시 연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다만,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AI 리터러시와 같은 최신 리터러시에 관련 연구 결과를 문헌정보학이 아닌 타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 학술지의 KCI 학문분류체계에 따라 학문분야를 구분한 방식이 문헌정보학의 비중을 실제보다 낮게 산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리터러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각 학문분야가 자신만의 연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예를 들어, 교육학은 이미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을 포괄하며 연구 저변을 확대해 왔지만,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AI·데이터 리터러시가 핵심 성장 영역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교육학 분야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학제간 연구 분야는 리터러시 개념이 다양한 학문과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여러 학문 분야들이 협력하여 복합적인 리터러시 연구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 경제학, 간호학 등 특정 리터러시에 집중해 온 분야들은 새롭게 등장한 리터러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결 론

본 연구는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2001년 이후 6,940편의 국내 리터러시 논문들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리터러시 연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전환점이 2019년이었음을 밝히고, 전후 시기의 리터러시 연구 변화 내용을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상세하게 밝힐 수 있었다. 물론 전 학문분야의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연구(이창봉 외, 2021)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 시기를 2025년 6월 중순 까지로 확장하여 수집 자료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급부상한 최신 동향을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학문분야와 리터러시 개념 간의 연관성, 학문분야별 성장지수, 키워드별 성장추세 등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국내 리터러시 연구의 지형을 보다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영문 ‘literacy’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논문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과 국내 연구자가 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배제되었다.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Literacy의 성장세가 뚜렷하므로 이를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비교할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온 Information Literacy와 AI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Literacy 간의 개념적인 연계성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리터러시는 AI에게 적절한 지

시를 내리기 위해 필요하고, 이 지시에 따라 AI 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 리터러시는 새로운 리터러시에 의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접점을 통해

어떻게 상호보완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 리터러시 연구와 해외 연구의 흐름을 비교하여 국내 리터러시 연구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2. 17.).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출처: <https://www.mst.go.kr/bbs/view.do?mId=113&bbsSeqNo=94&nttSeqNo=2405727>

김경화, 석혜은, 한은영 (2024).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탐색. 리터러시 연구, 15(5), 127-157. <http://doi.org/10.37736/KJLR.2024.10.15.5.04>

김도현 (2020). 국내 미디어 · 디지털 · 정보 · ICT 리터러시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6(3), 93-119. <http://doi.org/10.24159/joec.2020.26.3.93>

김수경, 박세당, 제갈선희, 이윤우, 박세호 (2024). 도서관 기반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종이책과 수퍼북을 활용한 읽기중심 독서지도 사례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1(4), 123-15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123>

김혜정 (2025). 대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5), 449-464. <http://doi.org/10.22251/jlcci.2025.25.5.449>

김혜정, 윤영 (2021). 문화 리터러시를 통한 문학 텍스트 해석: 화본소설 〈玉堂春 落難逢夫〉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6), 1-26.

박영수, 이창준 (2025).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9), 905-915. <http://doi.org/10.22251/jlcci.2025.25.9.905>

박주현 (2018). 독서 · 정보 · ICT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9(2), 267-300. <http://dx.doi.org/10.16981/kliss.49.2.201806.267>

손미현, 조현국 (2024). 서지분석을 이용한 AI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지식정보 처리역량의 연구 동향 및 관계 분석. Brain, Digital, & Learning, 14(3), 385-409.

신동희, 조은혜 (2025).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지, 26(2), 381-392.

오의경 (2025). 대학생의 AI 활용 특성과 인식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671-692. <http://doi.org/10.4275/KSLIS.2025.59.1.671>

- 윤지혜, 정유경 (202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연구주제 분석 및 교육내용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39(4), 1-21. <http://doi.org/10.3743/KOSIM.2022.39.4.001>
- 윤현수, 오상희, 이영미 (2024).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389-409.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89>
- 이다현, 신동희 (2024). 대학생 대상 정보 리터러시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정보관리학회지*, 41(3), 249-268. <http://doi.org/10.3743/KOSIM.2024.41.3.249>
- 이민수, 김혜진 (2022). 정보활용교육 주요 토픽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455-477. <http://doi.org/10.16981/kliss.53.3.202209.455>
- 이영희, 윤혜향 (2023).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연구동향: 2000년부터 2022년 학위논문 중심으로. *청소년상담학회지*, 4(3), 111-128. <http://doi.org/10.51613/JKYCA.2023.4.3.111>
- 이재윤 (2006).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http://doi.org/10.3743/KOSIM.2006.23.4.215>
- 이재윤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이재윤 (2023). 데이터 리터러시 연구 분야의 주경로와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0(4), 403-428. <http://doi.org/10.3743/KOSIM.2023.40.4.403>
- 이재윤, 김판준, 강대신, 김희정, 유소영, 이우형 (2011). 계량서지적 기법을 활용한 LED 핵심 주제영역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연구*, 42(3), 1-26. <https://doi.org/10.1633/JIM.2011.42.3.001>
- 이정미 (2023). ChatGPT, 생성형 AI 시대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303-323. <http://doi.org/10.4275/KSLIS.2023.57.3.303>
- 이정은, 오효정 (2025).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대응 정책 비교 연구: 한국의 정책 보완 방향. *정보관리학회지*, 42(1), 155-182. <http://doi.org/10.3743/KOSIM.2025.42.1.155>
- 이창봉, 윤영, 한승규 (2021).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 *리터러시 연구*, 12(6), 121-163.
- 이현아, 장우권 (2024). 중·장년층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2), 317-351. <http://doi.org/10.3743/KOSIM.2024.41.2.317>
- 임동신, 김진숙, 정광훈, 최수빈 (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과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후 비교 분석. *리터러시 연구*, 14(1), 13-52.
- 임성은, 강봉숙 (2024). 사서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4), 321-34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321>
- 임정훈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9(4), 23-48. <https://doi.org/10.3743/KOSIM.2022.39.4.023>
- 임정훈 (2024). '도서관과 정보생활'과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 41(3), 487-509. <http://doi.org/10.3743/KOSIM.2024.41.3.487>
- 장소영, 김경이 (2022).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5), 59-79.
<http://doi.org/10.22251/jlcci.2022.22.15.59>
- 장수현, 남영준 (2022). 문헌정보학 분야의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9(3), 263-292.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263>
- 장수현, 남영준 (2023). 이용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2), 263-282. <https://doi.org/10.3743/KOSIM.2023.40.2.263>
- 황현정, 박지수, 김승완 (2023). 국내외 AI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3), 135-184. <http://doi.org/10.24159/joec.2023.29.3.135>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s ERM Initiative & Protiviti (2018). Top Risks Report 2019: Executive Perspectives on Top Risks for 2019. Available: <https://erm.ncsu.edu/wp-content/uploads/sites/41/migrated-files/2019-erm-execs-top-risks-report.pdf>
- Schvaneveldt, R. W. (1990). Pathfinder Associative Networks: Studies in Knowledge Organization. New Jersey: Ablex.
- UNESCO (2025, Feb. 11). What You Need to Know about Literacy. Available:
<https://www.unesco.org/en/literacy/need-know>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Hwang, Hyeonjeong, Park, Jisoo, & Kim, Seungwan (202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A.I. literac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a: Based 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9(3), 135-184.
<http://dx.doi.org/10.24159/joec.2023.29.3.135>
- Im, Seongeon & Kang, Bong-Suk (2024). An analysis on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eacher librarians' media literacy education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321-34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321>
- Jang, So Young & Kim, Kyung Yee (202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media liter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5), 59-79.
<http://doi.org/10.22251/jlcci.2022.22.15.59>
- Jang, Su Hyun & Nam, Young Joon (2022).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n literac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3), 263-292.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263>

- Jang, Su Hyun & Nam, Young Joon (2023). A study on the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cultivation of generative AI literacy b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2), 263-282. <https://doi.org/10.3743/KOSIM.2023.40.2.263>
- Kim, DoHun (2020). A literature review for exploring research trends of media, digital, information, & ICT literacy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3), 93-119. <http://doi.org/10.24159/jec.2020.26.3.93>
- Kim, Hyejeong & Yun, Young (2021). Interpretation of literacy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iteracy. *Culture and Convergence*, 43(6), 1-26.
- Kim, Hyejeong (2025).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of university students by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5(5), 449-464. <http://doi.org/10.22251/jlcci.2025.25.5.449>
- Kim, Kyoung-hwa, Seok, Hye-eun, & Han, Eunyoung (2024). Exploration of research trends in digital literacy for the elderly using topic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5(5), 127-157. <http://doi.org/10.37736/KJLR.2024.10.15.5.04>
- Kim, Soo-Kyoung, Park, Sae-dang, Jae Gal, Seon Hee, Lee, Woon Woo, & Park, Se-ho (2024). A study on the operation of library-based literacy enhancement program: Focusing on reading-oriented reading guidance case using paper book and super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123-15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123>
- Lee, Changbong, Yun, Young, & Han, Seungkyu (2021). Trends in literacy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2(6), 121-163.
- Lee, Da-Hyeon & Shin, Donghee (2024).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in an information literacy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249-268. <http://doi.org/10.3743/KOSIM.2024.41.3.249>
- Lee, Hyun A & Chang, Woo Kwon (2024). A study on the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317-351. <http://doi.org/10.3743/KOSIM.2024.41.2.317>
- Lee, Jae Yun (2006).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http://doi.org/10.3743/KOSIM.2006.23.4.215>
- Lee, Jae 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Jae Yun (2023). Analyzing the main path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 data literacy research doma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4), 403-428. <http://doi.org/10.3743/KOSIM.2023.40.4.403>
- Lee, Jae-Yun, Kim, Pan-Jun, Kang, Dae-Shin, Kim, Hee-Jung, Yu, So-Young, & Lee, Woo-Hyoun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n LED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3), 1-26. <https://doi.org/10.1633/JIM.2011.42.3.001>
- Lee, Jeong-Mee (2023). ChatGPT, A study on the data literacy education in the library of the Chat GPT, generative AI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303-323. <http://doi.org/10.4275/KSLIS.2023.57.3.303>
- Lee, Jung-eun & Oh, Hyo-Jung (2025). A comparative study on deepfake-based disinformation response policies toward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1), 155-182. <http://doi.org/10.3743/KOSIM.2025.42.1.155>
- Lee, Min-Soo & Kim, Hea-Jin (2022). Comparative study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librarian teacher evaluation index in teachers' competency development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455-477. <http://doi.org/10.16981/kliss.53.3.202209.455>
- Lee, Young-Hee & Yun, Hye-Hyang (2023). Trends in media literacy in Korea: Focusing on dissertations from 2000 to 2022.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4(3), 111-128. <http://doi.org/10.51613/JKYCA.2023.4.3.111>
- Lim, Dongshin, Kim, Jinsook, Jeong Kwanghoon, & Choi, Subin (2023).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literac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4(1), 13-52.
- Lim, Jeonghoon (202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4), 23-48. <https://doi.org/10.3743/KOSIM.2022.39.4.023>
- Lim, Jeonghoon (2024). A comparative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literacy content frame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487-509. <http://doi.org/10.3743/KOSIM.2024.41.3.487>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December 17). Announce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National Strategy. Available: <https://www.mstic.go.kr/bbs/view.do?mId=113&bbsSeqNo=94&nttSeqNo=2405727>
- Oh, Euikyung (2025). College students' AI utilization and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671-692.
<http://doi.org/10.4275/KSLIS.2025.59.1.671>
- Park, Juhyeon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ization model for reading, information, ICT, and digital Litera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267-300. <http://dx.doi.org/10.16981/kliss.49.2.201806.267>
- Park, Young-Su & Lee, Chang Jun (202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nursing students' digital literacy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5(9), 905-915. <http://doi.org/10.22251/jlcci.2025.25.9.905>
- Shin, Dong-Hee & Jo, Eun-Hye (2025). Analyzing domestic research trends in digital literacy for the elderly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6(2), 381-392.
- Son, Mi hyun & Jho, Hunkoog (2024). Analyzing research trends and relationships in AI literacy, digital literacy, data literacy, and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Brain, Digital, & Learning, 14(3), 385-409.
- Yoon, Hyunsoo, Oh, Sanghee, & Lee, Yeongmi (2024). Factors affecting female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89-409.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89>
- Yun, Jihye & Jeong, Yoo Kyung (2022). A study of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4), 1-21.
<http://doi.org/10.3743/KOSIM.2022.39.4.001>